

조선 초기 명나라 청화백자의 유입과 수용 고찰

전 승 창*

- I. 머리말
- II. 조선 초기 중국자기의 유입기록과 출토유물
- III. 관요백자에 보이는 명나라 청화백자의 영향
-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 미술품을 대표하는 백자는 여러 각도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제작지, 종류와 형태, 장식 등에 대한 다양한 특징이 조명되고 있다. 특히 왕실과 관청에서 소용된 관요백자는 조선자기 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관요백자의 특징 가운데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이 중국자기와의 관계인데, 景德鎮 청화백자가 조선 초기 관요백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 가마터 발굴에서 경덕진 백자가 출토되며, 전세유물의 장식, 형태 등에서도 중국자기와 유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관요백자와 중국자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된 바 있지만,¹ 문헌기록의 정

* 삼성미술관 학예연구실장,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겸임교수

¹ 김영원, 「한국과 중국의 도자기류, 10~19세기」, 『중국도자』(국립중앙박물관, 2007); _____, 「조선 전반기 도자

리와 유물의 분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명칭이나 특정한 사항에 대한 언급, 유사점에 대한 단편적인 비교와 서술이 대부분이다. 그 결과 일부 자료의 축적과 관심의 증대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문헌 및 유물의 체계적인 검토와 다양한 현상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관요백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를 위해 명대 청화백자의 유입과 수용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중국의 백자는 조선 초기에 다수가 유입되었는데, 당시의 상황은 『조선왕조실록』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국의 유적에서도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기록에 보이는 중국자기의 유입경로, 종류, 시기를 살펴 중국과의 자기교류가 진행, 변화되는 양상을 파악하고, 나아가 소비유적의 중국자기 출토현상과 출토유물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결과를 토대로 명나라 청화백자와 조선 초기 백자를 비교하여, 교류의 영향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관요백자의 장식, 기종, 기형 등의 공통점을 밝혀보겠다. 한편, 관요백자의 제작에 중국백자의 영향을 수용하는 과정에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영향이 감지되는 관요백자의 제작시기와 중국 청화백자의 장식에서 빌려 쓴 소재가 유행하던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등 두 시기 사이에 시간적인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을 관요백자가 중국백자의 영향을 수용과정에서 생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규정하고, 원인과 과정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선 초기 중국백자의 유입 및 영향 관계는 물론, 관요백자의 위상과 특징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II. 조선 초기 중국자기의 유입기록과 출토유물

1. 조선왕조실록의 중국자기

조선 초기에 중국의 자기가 유입된 경로는, 중국에서 직접 반입되거나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었다. 조선은 두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신왕래와 무역을 했는데, 국

의 대외교섭, 『조선 전반기 미술의 대외교섭』(예경, 2006); _____, 「한반도출토 중국도자」, 『우리 문화 속의 중국 도자기』(국립대구박물관, 2004); 윤효정, 「조선 15~16세기 청화백자 연구」(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현정, 「조선 전기 백자에 보이는 명대 자기의 영향」(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전승창, 「조선전기의 백자 전접시 고찰」,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2호(삼성문화재단, 1997).

경을 드나드는 물품 중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에서는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백자를 하사하거나 사신이 개인적으로 진상하기도 하는 등 두 가지 성격의 자기가 유입되었으며, 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 조선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각종 물품을 진상했는데, 이들 물건 중에 자기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일본은 자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수요는 중국과 교역을 통해 충당했다.² 따라서 일본에서 조선에 바친 자기는 중국에서 구입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조선에 유입된 자기는 중국산 백자와 청자였다.

중국과 일본에서 직간접적으로 조선에 들어온 중국자기의 대부분은 궁중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1435년에 “지난번 창성(昌盛)을 위로해 잔치할 때 황제가 내려 준 자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니 창성이 말하기를 ‘왜 쓰지 않습니까’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려 주신 자기는 품질이 좋고 본국의 자기는 품질이 나쁘니 주인의 탁자에 좋은 그릇을 놓고 손님의 탁자에는 나쁜 그릇을 놓으면 손님을 대접하는 뜻에 어그러질까 두렵기 때문이오’하였더니 창성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주신 것인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하여 강성한 연후에 이를 사용하였다.”³는 기록을 통해서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에 유입된 중국자기는 광주 관요백자의 종류나 형태, 장식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왕실 및 관청용 백자 제작지였던 도마리 1호, 우산리 9호, 번천리 5호, 번천리 9호 가마터 발굴에서 중국산 청화백자가 출토되어, 관요백자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한 중국자기의 특징을 보이는 관요백자가 다수 전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나아가 관요백자와 중국자기의 관계는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중국자기의 유입과 관련된 기록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관련기록은 모두 31건으로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⁴

<표 1>에서 보듯이 중국에서 조선으로 자기가 유입된 횟수는 총 19건이고, 일본에서 들어온 경우도 12건이다. 유입된 자기는 백자와 청자 두 종류가 대부분이지만 분색자기, 주기, 자완, 사발과 같이 막연하게 표기된 경우는 어떤 종류인지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경덕진에서 백자를 활발하게 제작했고 龍泉에서는 청자를 만들어 내수 혹

² 일본에서도 해외교류가 활발했던 하카다(博多)에서 15-16세기 중국 경덕진에서 제작된 청화백자류가 다수 출토된다(福岡市教育委員會, 『博多86—博多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 第757集[2003], pp. 86-90).

³ 『世宗實錄』 卷68, 17年(1435) 4月 11日. “往者慰宴昌盛 不用欽賜磁器 昌曰 何不用乎 予曰: 欽賜磁器品好 本國磁器品惡 主卓之設好器 客卓設惡器 恐乖待賓之意 昌曰 帝賜也 何妨 強而後用之”

⁴ 전승창, 앞의 논문, pp. 105-107.

표 1 『조선왕조실록』의 중국자기 유입기록

구분	날짜		종류 및 수량	출처	비고
太宗 1400-1418	1408	8年 11月 5日	粉色砂器, 酒器	中國	使臣上納
	1417	17年 7月 21日	暗花粉色茶鍾 1, 茶瓶 1, 粉色茶鍾 1	中國	使臣上納
世宗 1418-1450	1423	5年 9月 24日	青磁盆 70箇, 白磁碗大小 20箇	日本	進 上
	1426	8年 11月 1日	盤 100, 磁碗 1,000	日本	進 上
	1426	8年 12月 14日	磁碗 1,000	日本	進 上
	1427	9年 1月 13日	沙鉢 100	日本	進 上
	1427	9年 3月 27日	沙盤 29, 沙鉢 180, 沙楪 290	日本	進 上
	1427	9年 4月 24日	粉色沙鍾 1	中國	使臣進上
	1428	10年 7月 19日	白素磁器 10卓, 白磁青華大盤 5, 小盤 5	中國	皇帝下賜
	1428	10年 8月 11日	磁鍾 1	中國	使臣進上
	1429	11年 1月 27日	青畫白磁鍾, 白磁畫鍾	中國	使臣進上
	1429	11年 5月 2日	白磁羚羊茶鍾 30, 白磁吧茶瓶 15	中國	皇帝下賜
	1429	11年 7月 18日	暗花鍾 4	中國	使臣進上
	1429	11年 11月 2日	白磁器 15	中國	皇帝下賜
	1429	11年 11月 2日	白磁青花大樑 4	中國	使臣進上
	1430	12年 7月 17日	青花獅子白磁卓器 3卓, 青花雲龍白磁酒海 3	中國	皇帝下賜
	1437	19年 1月 23日	倭人器皿	日本	民間購入
文宗 1450-1452	1450	即位年 8月 5日	青畫鍾 6事, 花楹 2事	中國	使臣進上
	1450	即位年 8月 6日	青花白鍾 5事, 紫色鍾 6事, 畫碗子 10事, 純青小碗子 10事, 純青酒注 1事, 大樑中樑小樑 60事, 青畫沙盤 9事, 青畫臺蓋 1事, 純青鍾 6事, 紫樑 27事, 花茶鍾 6事, 青苗金酒注 1把, 青畫白堤碗 10事, 青畫茶鍾 6事	中國	使臣進上
	1450	即位年 10月 7日	青磁酒具及同臺	日本	進 上
成宗 1469-1494	1471	2年 12月 12日	染着鉢 10枚, 白鐵鉢 10枚	日本	進 上
	1474	5年 12月 24日	青磁大碗 2口	日本	進 上
	1475	6年 5月 12日	畫器	中國	民間輸入
	1476	7年 8月 24日	器皿	中國	民間輸入
	1477	8年 閏 2月 10日	青畫器	中國	民間輸入
	1477	8年 閏 2月 13日	青畫磁器	中國	民間輸入
	1477	8年 閏 2月 14日	畫磁器	中國	民間輸入
	1477	8年 6月 6日	天竺酒甕 2, 種樹器青磁 1對, 青磁香爐 1	日本	上 納
	1480	11年 6月 7日	青磁酒海 1, 青磁鉢 2	日本	民間輸入
	1483	14年 7月 26日	磁器	中國	使臣進上
1494	25年 5月 11日	青瓷嗽器 1箇, 付嗽茶碗 1箇	日本	上 納	

은 수출용으로 사용했으므로, 조선에 유입된 자기의 대부분은 백자와 청자였을 것이다. 자기의 종류는 완을 비롯해 중, 발, 대접, 병, 반, 분, 잔, 향로, 주해, 주주 등 다양하다. 기록의 표기가 간략해 형태나 크기, 장식 등은 알 수 없지만, 1430년에 중국 황제가 보내준 3개의 <청화운룡백자주해>의 경우는 유입시기, 명칭, 운룡 장식, 기종 등으로 보아 『世宗實錄五禮儀』에 수록된 <白磁靑畫酒海>로 추정된다(도 1).⁵



도 1 <白磁靑花酒海>, 『世宗實錄五禮儀』 게재

유입기록을 시기 별로 살펴보면 태종 연간(1400-1418)에는 그릇의 종류가 주기와 다종, 다병으로 단순하며 수량도 소수에 불과하여 중국자기의 공식적 유입은 활발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 연간(1418-1450)에는 자기의 유입횟수와 수량이 크게 증가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1423-1427년 사이에 일본에서 2,789개에 이르는 다수의 자기가 진상되었고, 이어서 1427-1430년에 중국 황제 혹은 사신에 의해 많은 수가 새롭게 들어왔다. 일본에서 진상한 것에 비해 수량은 적지만 (청화)백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종류도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백자의 유입이 집중된 1427-1430년은 명의 宣德帝 재위기간(1426-1435)으로 경덕진에서 (청화)백자가 활발하게 제작되던 시기이다.

세종대에 중국백자가 공식으로 유입된 기록은 1430년까지 확인되어, 이후 일정기간 동안은 비공식 경로로 조선에 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 1448년(세종 30), “듣건데 중국에서는

⁵ 『世宗實錄五禮儀』에 수록된 <白磁靑畫酒海>의 제작지에 대하여 ‘명나라’라는 주장과 ‘조선’이라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정양모 선생은 국내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정양모, 「조선백자 청화백자」, 『한국미술사의 현황』[예경, 1992], pp. 403-404), 강경숙 선생도 국내산으로 추정하고 있다(강경숙, 「분원성립에 따른 분청사기 편년 및 청화백자 개시 문제」,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하)』[일조각, 1994], pp. 1494-1495). 김영원 선생 역시 1430년 조선에 유입된 <靑花雲龍白磁酒海>를 모델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p. 97).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윤용이 선생은 명나라 청화백자로 주장하며(윤용이, 「조선초기도자의 양상」,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특별전도록 21[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3], p. 80), 윤효정도 중국산으로 추정하고 있다(윤효정, 앞의 논문, p. 17). 필자는 첫째 <백자청화주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물이 알려져 있지 않고, 둘째 대좌와 하나의 세트를 이루며 받침 위에 올려 놓고 그림을 그릴 만큼 애지중지했던 점, 셋째 유입시기와 유물의 명칭이 유사한 점, 넷째 운룡장식이 공통의 소재로 등장하고 기종이 동일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1430년 중국 황제로부터 받았던 청화백자를 『세종실록오례의』에 수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화자기를 외국 사신에게 팔거나 주는 것을 금하고 이를 범한 자의 죄는 사형에까지 간다고 하니 이후로는 북경이나 요동에 가는 길에 자기 무역하는 것을 일절 금하라.”⁶는 기록에서 당시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기록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조선에서는 중국산 청화자기에 관심이 많았고 사신이 중국을 방문할 때 구입을 위한 상거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청화자기의 구입은 궁중에서 사용할 목적일 수도 있지만 사신이나 방문자 개인의 사사로운 거래였을 가능성도 크다. 이후에도 자기유입은 지속되었는데, 1450년 문종 즉위년에 중국의 사신 윤봉과 정선이 다수의 (청화)백자를 조선왕실에 바치고 있어 흥미롭다. 『문종실록』의 표현이 모호해 사신이 사적으로 선물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종류와 수량이 많고 과거 중국 사신이 가져온 것과 비교해 규모가 커서 황제가 하사한 물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전과는 대조적으로 단종(1452-1455)과 세조 연간(1455-1468)에는 자기가 유입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세조 연간에는 국내에서 백자 장식에 필요한 청화안료를 찾으려는 노력이 집중되는데,⁷ 안료개발은 중국자기의 유입기록이 보이지 않는 시기와 비슷해 이들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안료개발 노력은 세조가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여 중국과 외교 및 물품교류가 원만하지 못해 벗어난 일로, 중국자기의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사라짐에 따라 왕실권위의 상징인 (청화)백자를 직접 제작하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의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종 연간(1469-1494)에도 중국 사신이 자기를 소수 진상하고 필요한 물품을 받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 황제가 조선에 보내는 물품에서 백자는 사라졌고 사신이 자기를 바치는 일도 1483년 한 건에 그치는 등 세종 및 문종 시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 (청화)백자와 관련된 기록의 내용도 크게 변하는데, 국내에서 민간의 청화백자 사용이 금지되고 관요가 사용원에 의해 운영되며, 청화백자를 동경하던 지배층에서 중국산 청화백자를 밀수입해 야기된 사회문제가 주로 언급된다.⁸

6 『世宗實錄』 卷119, 30年(1448) 3月 3日. “傳旨禮曹 聞中朝禁青花磁器賣與外國使臣 罪至於死 今後赴京及遼東之行 貿易磁器 一皆禁斷”

7 『世祖實錄』 卷30, 9年(1463) 5月 24日. “全羅道敬差官丘致峒得回回青於康津以進”; 『世祖實錄』 卷31, 9年(1463) 閏7月 3日. “慶尙道敬差官柳緩來復命 仍進諸邑產物 …… 密陽府回回青相似石 …… 義城縣回回青相似石”; 『世祖實錄』 卷34, 10年(1464) 8月 7日. “全羅道敬差官丘致峒 採順天府回回青相似石 畫沙器燔造 并採康津縣青鐵以進”; 『世祖實錄』 卷34, 10年(1464) 9月 13日. “慶尙道觀察使採進蔚山郡所產深重青土青三青”

8 『成宗實錄』 卷55, 6年(1475) 5月 12日. “今觀士大夫之家 日事侈麗 爭相誇美 以其甚言之 大小宴集 非畫器不用 …… 夫畫器 上國所產 馱載爲難 而家家有之 使臣之行 禁令雖嚴 以冒法如是 …… 伏願畫器之用 一切禁斷”(이제 사대부의 집을 보면 날마다 사치를 일삼고 서로 다투어 아름다움을 뽐내는데, 그중에서 심한 것을 말하자면, 크고 작은 연회에 그림을 그린 그릇이 아니면 쓰지 않고 …… 대저 그림을 그린 그릇은 중국에서 나는 것이므로

위에서 살펴본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중국산 (청화)백자의 유입은 세조 연간(1418-1450)에 집중되어 문종(1450-1452)의 즉위년인 1450년까지 이어지며, 이후에는 뚜렷한 자기교류가 없었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1448년 조선의 사신이 중국을 방문할 때 청화자기의 거래를 금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므로, 개인을 통한 중국자기의 유입도 더욱 감소했을 것이다. 따라서 1450년 직후 조선에서 국내산 (청화)백자를 제작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을 것은 일면 당연하다. 이 시기에 경기도 광주에서 백자가 제작되고 있었으며,⁹ 1456년 만들어진 <白磁靑畵仁川李氏墓誌石>과 같은 유물이 있어 추정을 뒷받침한다. 특히, 세조 연간(1455-1468)에 관요가 설치된 점, 이 시기에 중국자기의 유입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점, 전국에서 청화안료를 찾으려 노력했던 점 등은 중국과의 자기교류 변화가 하나의 배경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위에서 성종 연간(1469-1494)에 중국자기의 공식적 유입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지적했는데, 결국 이것은 중국자기와 비견될 만한 (청화)백자가 관요에서 이미 제작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일련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1466년 관요 설치 이후 초기에 제작된 왕실용 (청화)백자 중에는 중국자기와 유사한 기종, 장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¹⁰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전

실어 날라 오기가 어려운데도 집집마다 있습니다. 사신의 행차 때에 금령이 엄하기는 하나 이처럼 법을 어깁니다): 『成宗實錄』 卷77, 8年(1477) 閏2月 10日. “今豪富之家 競用靑畵器 唐物非自來 必有輸來之者 其弊不貲 請痛禁 上曰 勿買唐物 曾已立法 其申明之”; 『成宗實錄』 卷77, 8年(1477) 閏2月 13日. “靑畵磁器已禁用 但大臣戚里好用之 本府禁亂吏 豈得發摘乎 請申飭禁止”; 『成宗實錄』 卷77, 8年(1477) 閏2月 14日. “傳旨議政府曰 …… 比聞勳戚貴近先自毀法 閭巷小民亦相率而侈靡 其中巨商富賈繼情無忌習以爲俗 至如畵磁器非土產也 而求買上國 其不畏邦憲如此”

⁹ 전승창, 「15-16세기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관요연구」(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 249-284.

¹⁰ 광주에 왕실과 관청용 백자를 제작하던 관요가 처음 설치된 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정양모 선생은 『경국대전』 반포 당시 이미 광주 분원에서 왕실용 자기번조의 실무를 담당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설치시기의 폭을 넓게 잡아 선조 연간(1567-1607) 이전이라는 학설을 제시한 바 있다(정양모, 「사용원과 분원」, 『국보8-백자·분청사기』[예경산업사, 1984], pp. 189-193). 이후 윤용이 선생은 사용방이 사용원으로 개칭되고 녹관이 설치된 1467년 4월을 전후하여 '분원'이 설치되었고, 이것이 백자 제작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였다(윤용이, 「조선시대 분원의 성립과 발전」, 『광주분원과 조선도자』[경기도박물관, 2001], pp. 7-8). 또한 강경숙 선생은 '분원'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사용원 관리가 정식으로 어용그릇을 만드는 데 파견된 후라고 보아 분원성립은 1469년 이후의 일이라고 역설하였다(강경숙, 「분원성립에 따른 분청사기 편년 및 청화백자 개시문제 시론」,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하)』[일조각, 1994], p. 1496). 이러한 다양한 견해에 대하여 김영원은 1467년 4월에서 1468년 12월 사이에 '분원'이 설치되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피력하였다(김영원, 「조선전기 도자의 시기구분」, 『조선전기 도자의 연구-분원의 설치를 중심으로』[학연문화사, 1995], p. 54). 필자는 공사 간의 백자사용금지, 기존 방식의 공납중지, 국가에 의한 백토 산출처의 철저한 통제, 공조에 의한 관련 업무의 관리, 그리고 이 시점에 『경국대전』의 편찬이 일단락된 점 등에 근거하여 1466년 6월을 전후한 시기에 광주에 관요가 최초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전승창, 「경기도 광주 관요의 설치시기와 번조관」, 『미술사연구』

과 다른 새로운 형태나 장식으로 꾸며진 중국산 (청화)백자가 조선에 공식적으로 유입되지 않아 흥미롭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관요 설치 직후 제작된 청화백자의 특징을 추정해 보면, 15세기 말에는 중국자기의 유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동시기 중국산 청화백자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관요백자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오히려 1450년까지 세종과 문종 시기에 조선에 다수 유입되어 궁중에 전세되던 중국산 (청화)백자가 모델이 되어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사이 관요백자의 장식, 구성, 기형 등에 그 특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 유적 출토 명나라 청화백자

경기도 광주 가마터를 비롯해 전국의 소비유적에서 중국산 (청화)백자 파편이 다수 출토되는데, 먼저 광주에서 발견된 중국자기는 가마터 출토품과 지표 수습품으로 대별된다. 파편이 출토된 가마터는 도마리 1호(1505년 전후), 우산리 9호(1542년 전후), 번천리 5호(1554년 전후), 번천리 9호(1552년 전후)이며, 지표에서 유물이 수습된 곳은 우산리 15호, 관음리 22호, 대쌍령리 1호 등 모두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사이에 운영된 가마이다. 따라서 중국자기와 관요백자의 영향 관계를 밝히기 위해 가마터와 소비유적지에서 출토된 중국산 청화백자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광주 가마터 출토품

도마리 1호에서는 3건의 중국산 청화백자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발과 접시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던 종류이다(도 2).¹¹ 발은 크기의 파악이 어렵지만 장식은 선명하다. 주둥이 부근에 일종의 구갑문을 채우고 몸체에 팔보당초나 초화를 그렸으며 그림솜씨가 거칠고 정교함이 떨어진다. 그림, 질, 굽바닥 상태로 보아 중국 정덕 연간(1506-1521)의 경덕진 民窯品으로 추정되는데,¹² 광주 관요에서 경덕진 민요품이 출토된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한편, 우산리 9호에서는 완이 출토되었는데,¹³ 표면 곳곳을 횡선으로 나눈 후 식물 잎과 당초덩굴을 빠른 붓질로 간략하게 그려 장식했다. 이 파편 역시 중국 경덕진 백자이지만 특징이 모호해 민요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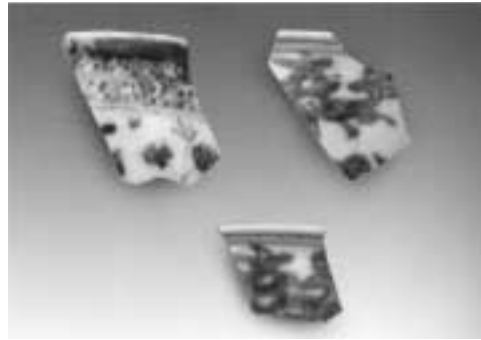
22호[미술사연구회, 2008]).

¹¹ 국립중앙박물관, 『광주군 도마리 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도마리 1호요지』(1995), p. 108.

¹² 이들 유물의 국적과 제작시기 등에 대하여, 북경고궁박물관 이휘병 선생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중앙박물관, 위의 보고서[1995], p. 108).

¹³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앞의 보고서(1993), p. 34.

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태토와 표면의 상태가 좋지만 소재의 구성과 표현은 성글다.¹⁴ 또한 번천리 5호에서 출토된 발 2점의 경우도 장식이 도마리 1호 출토품과 유사한데,¹⁵ 질이 거칠고 장식이 조잡하여 경덕진 민요품으로 보인다. 이외에 번천리 9호에서는 발, 접시, 완 등 8점에 이르는 비교적 많은 수의 유물이 확인되었다.¹⁶ 붉은 청화안료로 당초, 사자, 매화 등을 장식했고, 접시에 花唐草와 水石欄干文을 그려 넣었다. 수석난간 문은 경덕진 민요품에서 즐겨 그렸던 소재 중 하나로 파편에 그려진 그림과 장식소재, 구성, 그림솜씨 등이 대체로 유사하다.¹⁷



도 2 〈白磁靑畫草花文碗破片〉, 중국, 16세기, 경덕진요산, 경기도 광주 도마리 1호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출토품 이외에 광주의 가마터 지표에서도 중국자기가 수습되었다. 그중 우산리 15호에서는 접시의 저부가 발견되었는데, 질은 청화안료로 당초와 꽃을 빠른 붓질로 대충 그려 장식했다. 또한 관음리 22호에서 수습된 완에는 두 줄의 황선과 당초문이 있고, 대쌍령리 1호에서도 초화문을 거칠게 장식한 파편이 확인되었다. 이들 유물 역시 장식소재의 크기가 크고 그림의 밀도가 떨어지며 솜씨가 거칠어 경덕진 민요나 주변 지역의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왕실용과 관청용 백자를 제작하던 관요에서 중국산 경덕진 청화백자가 발견되어 그 특징의 일부가 관요백자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출토된 중국산 청화백자와 동일한 그림이 그려진 관요백자는 발굴 출토품이나 전세유물 모두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2) 소비유적지 출토품

중국산 청화백자는 여러 소비유적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당시 실생활에서 사용되었다

14 우산리 9호 출토품을 비롯한 중국산 청화백자의 제작지에 대한 문제는 중국 청화백자를 전공한 대만 고궁박물관원의 施靜菲(Ching-Fei Shih) 박사에게 사진자료를 통하여 자문을 구하였다.

15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번천리 5호, 선동리 2·3호』(1985), p. 119.

16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광주 번천리 9호 조선백자요지』(2007), p. 274.

17 윤효정, 앞의 논문, pp. 60-61.



도 3 <白磁靑畫唐草文大椀>, 중국, 16세기, 경덕진요산, 충청북도 청주 용정동 출토,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는 사실을 증명한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및 장교동을 비롯해,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 용인시 임진산성, 충청북도 청주시 용정동, 경상남도 구미시 진평 등이 대표적인 출토유적이다. 서울시 을지로에서는 접시, 완, 잔, 대접 등 모두 다섯 점이 출토되었으며,¹⁸ 크기와 종류, 장식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 완에는 연꽃과 당초, 끝이 뾰족하고 길이가 긴

꽃이 성글게 그려져 있다. 이들 장식은 서울시 장교동에서 출토된 완, 대접과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그릇의 종류와 모양,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 소재와 구성이 같아 경덕진 등에서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암사지에서도 중국산 청화백자반, 완 파편이 출토되었다. 반은 표면에 짙은 색의 청화안료로 보상당초를 그린 후 굽과 주변의 유약을 깨끗이 닦은 것이 특징이다.¹⁹ 완은 당초를 장식한 후 저부에 여의두를 거칠게 그려 마무리했는데 굽바닥에 문자가 적혀 있지만 대부분 파손되었다. 청주시 용정동 유적 발의 경우, 형태가 거의 완벽하며, 외면에는 팔보당초를 가득 채우고 저부에 여의두를 황으로 배치한 점 등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유물의 장식소재와 구성은 광주 가마터에서 확인된 중국산 청화백자와 유사해 유물의 제작지 및 제작시기, 유입시기 등과 관련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소비유적 유물 중에 관심을 끄는 것이 임진산성에서 발견된 2점의 파편이다. 이 중 한 점에는 짙은 색의 청화안료로 외면에 범자를 상하좌우 일정한 간격으로 가득 썼고, 안바닥에도 작은 원을 그린 후 그 속에 범자 한 글자를 자를 대고 그린 듯 반듯하고 크게 적어 놓았다. 특히, 굽바닥에 ‘大明宣德年製’(1426-1435)라는 문자를 두 줄로 써 놓았는데 중국산 청화백자의 유입과 관련하여 주목된다.²⁰ 다른 한 점의 완은 내면 중앙에 국화절지가 등근 윤곽선 속에 성글게 그려져 있으며 굽바닥에는 ‘長春佳器’라고 적혀 있어 함께 출토된 다른 유물의 문자와 차이가 있다. 이 문자가 적혀 있는 중국자기는 매우 적은 편으로 명나라 嘉靖(1522-1566), 萬曆(1573-1619), 天啓(1621-1627), 崇禎(1628-1643) 연간에 제작된 청화백자에서만 소수 발

18 국립대구박물관, 『우리 문화 속의 중국 도자기』(2004), pp. 116-117.

19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단연구원, 『회암사Ⅱ-본문』(2003), p. 314.

20 김영원, 앞의 논문(2007), p. 36.

견된다.²¹ 따라서 이 파편의 제작시기를 통해 16세기 혹은 17세기에도 중국자기가 조선에 일부 유입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상도 구미 진평 유적의 접시는 광주 가마터와 소비유적에서 출토된 중국산 청화백자접시 혹은 반이라 칭하는 종류의 완전한 형태를 보여 준다. 당초문이 있고 如意錦地文이 짙은 청화안료로 그려져 있는데, 질이나 형태, 장식소재, 구성, 표현 등이 조잡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15세기 전반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중국산 (청화)백자는 중국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보내주거나 사신의 진상품으로 받은 것이어서 유입품은 대부분 양질의 경덕진 관요백자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광주 관요나 소비유적에서 출토된 중국자기는 경덕진 민요 혹은 주변의 제작지에서 만들어진 질이 거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15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경덕진 관요품이 공식교류를 통해 유입되었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거친 질의 경덕진 민요산 청화백자 등이 밀무역 혹은 사무역을 통해 조선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왕실용 백자를 만들던 관요에서조차 경덕진의 거친 청화백자가 출토된다는 사실은 위의 추정을 대변한다.

III. 관요백자에 보이는 명나라 청화백자의 영향

조선에 유입된 중국산 (청화)백자가 관요에서도 출토되어, 관요백자의 장식이나 기형 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관요백자에서 중국자기의 특징이 발견되므로 장식과 형태로 나누고 대표적 실례를 들어 영향의 정도와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장식소재와 구성의 유사성

중국 명나라 청화자기의 그림이 관요백자에도 그려졌는데, 대접, 완, 잔, 잔받침, 병, 항아리 등 여러 기종에서 고루 나타난다. 관요백자에 그려진 장식은 동물, 식물, 기하문이며,²² 주문양과 보조문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²³

²¹ 李正中·朱裕平, 『中國古瓷銘文』(天津人民出版社, 1991), pp. 105-106.

²² 물론, 관요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의 그림장식은 화원에 의해 그려졌으므로, 동시대 회화에 유행하던 왕실 취향의 소재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²³ 명나라 자기의 영향을 받은 관요백자의 문양으로 화당초, 운룡, 문자, 연판을 꼽기도 한다(이현정, 앞의 논문).

1) 주문양

소재는 동물, 식물문으로 대별되며, 동물의 경우 용, 말, 식물은 보상당초, 국화절지, 연화절지가 대표적이다. 용이 그려진 관요백자는 우산리 9호에서 출토된 호의 파편과 〈백자청화운룡문병〉 두 점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1430년(세종 12) 중국 황제가 보낸 〈청화운룡백자주해〉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세종실록오례의』에 남아 있을 뿐이다(도 1). 상감청자와 분청사기에도 용이 보이므로 관요백자의 장식이 전통을 답습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청화백자의 용은 머리, 몸통, 다리, 비늘 등 세부표현과 전체 모습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종실록오례의』 〈백자청화주해〉의 용은 선덕 연간(1426-1435) 제작된 〈백자청화운룡문선덕연제명호〉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도 4). 나아가 호에 그려진 용은 몸체를 횡으로 길게 늘이고 앞발과 뒷발을 수평으로 뻗고 있는 점, 머리카락의 모양, 수염과 뿔의 방향, 발가락과 비늘의 표현 등 그 특징이 광주 관요품인 〈백자청화운룡문병〉(도 5)과 서로 유사하여²⁴ 두 유물 사이에 영향관계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²⁵ 두 유물 사이의 공통점은 15세



도 4 〈白磁靑畫 宣德年製 銘雲龍文壺〉, 중국, 1426-1435년, 경덕진요산, 높이 52.0cm, 일본 에티미즈미술관 소장



도 5 〈白磁靑畫雲龍文瓶〉, 조선, 15-16세기, 높이 21.5cm 입지름 4.6cm 바닥지름 6.9cm, 보물 785호, 삼성미술관 소장

p. 99).

²⁴ 광주 우산리 9호에서 출토된 〈백자청화운룡문호파편〉에 그려진 용의 모습은 선덕 연간(1426-1435)의 것과 유사하지만, 〈백자청화운룡문병〉에 그려진 용의 얼굴이 정덕 연간(1506-1521)의 장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기도 한

기 말에서 16세기에 제작된 관요백자의 장식이 15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중국산 청화백자의 그림을 모본으로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말이 그려진 <백자호뚜껑파편>이 변천리 9호 가마터에서 출토되었는데(도 6), 말 한 마리가 앞을 향해 뛰며 머리를 돌려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물결을 그려 넣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말의 모습은 중국 원나라와 명나라 청화백자에서도 발견된다(도 7). 그중에서 명나라 <백자청화 인물문병>에 그려진 말과 주변의 모습은 변천리 9호 파편에 장식된 그림을 연상케 할 정도이다. 변천리 9호 가마는 1552년 전후에 운영되었으므로 선후관계를 따져 보아도 관요백자의 말은 명나라 초기에 제작된 청화백자를 모본으로 장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관요백자에 즐겨 그려진 대표적인 장식소재의 하나가 보상당초문이다. 우산리 9호의 파편을 비롯해 향아리, 병, 잔, 잔받침 등 다양한 전세유물에서 나타난다. 보상화는 위에서 보고 그린 듯 원형으로 펼쳐져 있으며 중앙에 동그란 꽃술이 있고 옆 가장 자리를 뾰족하게 묘사했다. 이 꽃은 중국 청화백자에도 빈번히 그려졌으며 연꽃으로 알려져 있고 전지연문(纏枝蓮文)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²⁶ 중국 백자와 관요백자의 꽃은 종류와 생김새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예를



도 6 <白磁靑畫馬文뚜껑파편>, 조선, 1552년 전후, 변천리 9호 출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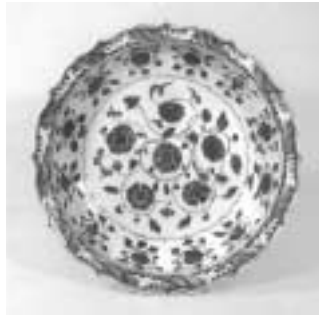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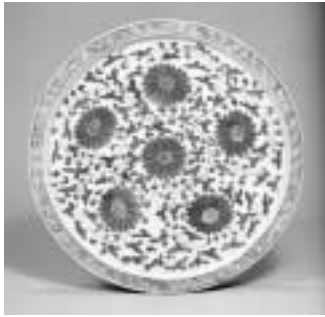


도 7 <白磁靑畫人物文瓶>, 중국, 15세기 초, 경덕진요산, 높이 38.2cm, 중국 계림박물관 소장

다(이현정, 위의 논문, pp. 109-110). 그러나 필자는 그림의 전체구도나 용의 빨, 수염, 수평으로 뻗고 있는 다리의 위치, 구름의 모습 등은 16세기 중국산 청화백자에 그려진 용의 모습과 차이가 분명하여, 두 점의 병 모두 선덕 연간에 그려진 용을 모델로 장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²⁵ 윤효정은 <백자청화운룡문병>에 그려진 용의 모습이 중국 선덕 연간의 청화백자와 유사한 것을 지적하고, 『세종실록오례의』에 수록된 <백자청화주혜>의 운룡문 양식을 토대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윤효정, 앞의 논문, pp. 86-87).

²⁶ 鐵源, 『明清瓷器紋飾鑑定-荷蓮牡丹文飾卷』(華齡出版社, 2003), pp. 9-107.



도 8 <白磁靑畫寶相唐草文蓋托>, 조선, 15세기, 높이 1.8cm 입지름 22.7cm 바닥지름 15.1cm, 일본 동양도자미술관 소장

도 9 <白磁靑畫纏枝蓮文花形盤>, 중국, 15세기 초, 경덕진요산, 입지름 34.0cm, 일본 개인 소장

들면, <백자청화보상당초문잔탁>(도 8)은 여섯 송이의 꽃과 당초문이 가득한데, 그림을 보면 중앙에 꽃 한 송이를 그린 후 그 주변에 다섯 방향으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며 다섯 송이를 각각 나누어 장식하고 주변을 당초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 구성은 중국 영락 연간(1403-1424)에 제작된 <백자청화화형반>의 전지연문과 매우 유사하다(도 9)²⁷ 또한 중국자기에 그려진 꽃도 일본에 소장된 광주 관요품인 <백자청화당화당초문잔받침>과 동일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자기의 장식소재와 함께 문양의 구성도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일한 장식이 광주에서 제작된 삼성미술관 소장 <백자청화전지연문호>에서도 발견되는데 꽃과 덩굴을 가로로 길게 펼쳐 그려, 관요에서는 그릇의 형태에 맞게 소재를 재구성하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요백자에 명나라 청화장식도 나타나지만 세부의 표현과 구성에 조선적인 변화를 가미했던 것이다.

관요백자에는 국화와 연화절지를 장식한 예도 알려져 있다. <백자청화국화연화문양이 잔>(도 10)에 꽃을 중심으로 앞이 좌우에 길게 뻗은 국화절지가 있는데, 꽃술은 원형으로 안쪽에 촘촘한 격자선(格子線)을 채웠고 꽃잎은 짧게 그렸다. 동일한 모습의 국화를 <백자청화국화절지문발>(도 11)과 같은 명나라 청화백자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점은 연꽃에서도 나타난다. 연화절지는 주문양 혹은 보조문양으로 모두 그려졌는데, 꽃을 중심으로 위쪽과 주변 등 모두 다섯 곳에 실제 연꽃과 관계 없는 당초의 잎을 그려 놓았다. 유사한 장식이 중국 개인 소장 <백자청화연화절지죽림칠현문호> 등 명나라 초기부터 말기 사이 제작된 백자완, 호, 주전자, 접시 등에 그려져 있어 관요백자와의 영향 관계를 추정하게 한다.

²⁷ 전지연문의 문양구성은 영락(1403-1424), 선덕(1426-1435) 연간에 많이 만들어졌으며, 이 시기의 유물이 광주 관요의 청화백자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이현정, 앞의 논문(2007), pp. 99-105).



도 10 <白磁靑畫菊花蓮花文兩耳盞>, 조선, 15세기,
높이 4.5cm 너비 10.9cm 바닥지름 3.4cm,
개인 소장



도 11 <白磁靑畫菊花折枝文鉢>, 중국,
15세기 초, 경덕진요산,
너비 22.0cm, 일본 개인 소장

2) 보조문양

백자의 어깨나 저부, 빈 공간에는 크기가 작은 문양이나 도식적인 그림을 넣어 꾸몄는데, 대표적인 소재로 구름, 구갑, 격자, 칠보, 여의두, 연화절지, 보상화, 모란당초, 연판, 문자 등이 있다. 이 중에 구름은 <백자청화운룡문병>(도 5)이나 우산리 9호(1542년 전후) 출토 항아리의 파편과 같이 용과 함께 묘사되기도 했지만, 변천리 9호(1552년 전후) 뚜껑의 파편처럼 단독 장식되기도 했다. 구름은 윤곽선을 그린 후, 선과 약간의 간격을 두고 그 속에 안료를 짙게 칠한 것이 특징이다. 구름의 모습은 중심 부분을 여의두 모양의 둥근 곡선으로 표현하고 꼬리와 같은 가장자리는 서너 방향으로 뾰족하게 뻗치거나 일부 끝 부분을 직각으로 꺾어 그리는 등 변화를 주었는데, ‘宣德年製’(1426-1435) 명문이 있는 중국산 <백자청화운룡문호>에서 유사한 모습이 발견된다(도 4).

구갑문은 변천리 9호에서 출토된 항아리 뚜껑의 중심부와 가장자리에서 볼 수 있다(도 6). 뚜껑의 형태를 따라 횡으로 두 겹 혹은 세 겹 도식적으로 장식했고, 구갑 속에 크기가 작은 구갑을 겹쳐 넣은 듯 두 줄의 윤곽선을 둔 후, 중심에 작은 점을 찍어 마무리했다. 청자와 분청사기에서도 구갑문이 발견되지만 변천리 9호의 운영시기인 1550년대와는 너무 큰 시간의 격차가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함께 그려진 말 그림이 명나라 청화백자에서 차용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갑문은 중국산 청화백자의 영향으로 새롭게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명나라 청화백자에 구갑을 장식한 예가 다수 확인되어, 추정을 뒷받침한다(도 7).

칠보문은 대표적인 보조문양의 하나로 잔받침 외면의 정해진 공간에 주로 그려졌다. <백자청화보상당초문잔탁>의 외면 6-8곳에 간략하게 표현된 모습이 전형인데(도 12), 중국



도 12 <白磁靑畫寶相唐草文蓋托>, 조선, 15세기, 높이 1.8cm
입지름 22.7cm 바닥지름 15.1cm,
일본 동양도자미술관 소장



도 13 <白磁靑畫七寶文壺>, 중국, 15세기 초,
경덕진요산, 높이 16.5cm,
중국 고궁박물관 소장



도 14 <白磁靑畫梅竹文壺>, 조선, 15-16세기, 높이 31.3cm,
일본 동양도자미술관 소장



도 15 <白磁靑畫纏枝蓮文 '大明宣德年製' 銘壺>, 중국, 1426-1435년,
경덕진요산, 높이 34.7cm,
일본 개인 소장

원나라와 명나라 백자에 즐겨 장식되던 소재로 <백자청화칠보문호>를 비롯해 반, 대접 등 여러 기종에 나타난다(도 13). 전세유물 이외에도 1493년 전후 운영된 귀여리 11호 출토품을 비롯해, 16세기 중반 변천리 9호에서도 칠보가 그려진 잔받침 파편이 수습된 바 있다.

연판은 <백자청화매죽문호>(도 14)와 같은 항아리 저부에 띠 모양으로 둘러 장식되었다. 연판은 두 줄이 겹친 형상이며 구름문처럼 윤곽선을 그리고 약간의 간격을 벌려 공간을 남긴 후 안쪽에 안료를 칠해 표현하였다. 명나라 대접이나 접시, 주전자, 호 등에서도 연판문

이 발견되며 '宣德年製'(1426-1435) 명문이 있는 <백자 청화전지연문호>(도 15)의 연관은 구성이나 개체의 표현 방법 등이 관요백자의 장식과 동일하다.

관요백자에 보이는 중국자기의 영향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어야 할 소재가 화판문이다.²⁸ <백자청화매죽문호>의 어깨와 저부에 화판이 반복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내부에 식물의 잎 혹은 줄기로 보이는 선이 있고 선의 중심이나 좌우변에 꽃 장식을 두었다. 화판은 중국자기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백자청화절지화문주자>(도 16)의 어깨에 띠 모양으로 반복해 배치되어 있으며, 가장자리 중심부분을 뾰족하게 처리하고 내면에 이중으로 윤곽선을 그은 후 가운데 꽃을 그렸다. 그런데 화판장식이 있는 중국유물은 원나라와 명나라 초기의 것이 대부분이지만 광주 관요백자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장식의 유행시기에 선 후관계가 뚜렷하다.



도 16 <白磁青畫折枝花文注子>, 중국, 15세기 초, 경덕진요산, 높이 38.8cm, 중국 고궁박물관 소장

지금까지 관요백자의 청화장식 중 일부를 명나라 청화백자와 비교하고 둘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관요백자에 등장하는 소재와 세부의 표현에서 중국산 청화백자의 장식과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영향 관계 이외에도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관요백자가 중국자기와 동일한 소재로 장식되기도 하지만 기종과 장식구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운룡문의 경우 중국에서는 호, 완, 접시 등에 주로 나타나지만 조선에서는 병이나 호와 같은 왕실용의 특정한 기종에 장식될 뿐, 기종과 문양의 구성까지 철저하게 따르는 것은 아니다. 기종과 구성의 차이는 말 그림이나 칠보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관요백자의 청화장식은 16세기가 되면 보조문양이 적어지거나 사라지고 회화장식 위주로 변화되며, 여기에 詩文이나 포도와 같은 새로운 요소가 등장하는 등²⁹ 변화와

²⁸ 화판문이 시간이 경과하며 변화되고 간략하게 생략되어 위에서 살펴본 연판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현정, 앞의 논문, pp. 114-116).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연판과 화판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된다. 연판과 화판은 선덕 연간(1426-1435)에 서로 다른 장식소재로 청화백자의 장식에 동시에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이미 각각 다른 종류의 소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화판의 경우, 형태와 세부표현으로 보아 보상화의 변형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이 뚜렷해진다.³⁰ 따라서 중국 청화장식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영향마저도 관요백자의 특징으로 다양하게 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장식시기의 문제이다. 관요백자의 그림장식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에 걸쳐 나타난 것인데, 연관되는 특징을 가진 중국의 청화백자는 15세기 전반의 것이 다수였다. 즉 관요백자에 보이는 용이나 말, 보상당초, 화관문양 등은 주로 15세기 초에 제작된 중국 청화백자와 유사하여, 어떻게 시기 차이가 있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사이 광주 관요의 장식문양으로 채용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낳는다. 언뜻 생각하기에 동시기에 제작된 중국의 청화장식이 관요백자의 소재로 선택되는 것이 당연한데, 광주 관요에서는 무언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3장에서 ‘명나라 청화백자 수용과정의 몇 가지 문제’로 다루고자 한다.

2. 기종과 기형의 연관성

중국산 청화백자의 기종과 기형이 관요백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발이나 접시, 호 등 몇몇 종류의 유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접시의 경우, 번천리 9호에서 중국산 〈백자청화화당초문접시파편〉(도 17)이 1/2 정도 파손된 채 발견되었는데, 이 유물을 모본으로 제작한 듯 동일한 형태의 관요백자도 다수가 함께 출토되어 주목된다(도 18). 크기, 비례, 주둥이 가장자리 및 기벽의 곡선, 편평한 안바닥 등



도 17 〈白磁靑畫花唐草文櫟匙破片〉, 중국, 16세기, 경덕진요산, 번천리 9호 출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 18 〈白磁櫟匙破片〉, 조선, 1552년 전후, 번천리 9호 출토,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²⁹ 이원복, 「조선백자에 나타난 포도화」, 『미술자료』 45(국립중앙박물관, 1990), p. 11.

³⁰ 전승창, 앞의 논문(2007), pp. 190-192.

이 서로 동일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이 형태의 접시는 15세기 말이나 16세기 전반에 운영된 가마터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1552년을 전후하여 운영된 변천리 9호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시기를 즈음하여 새로 유입된 중국백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종류로 추정된다. 관요에서 제작된 호에서도 명나라 청화백자와 유사한 특징이 발견되는데, 중국 경덕진 제작품인 <백자청화운룡문호>와 같이 주둥이가 곧게 뻗어 있는 종류가 대표적이다. 이 호와 거의 유사한 관요백자가 16세기 초에서 중반 사이에 운영된 도마리 1호, 우산리 9호, 변천리 9호 가마터에서 모두 출토되었다. 이 호는 관요 운영 직후인 15세기 말부터 중국백자의 영향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세부의 특징이 조금씩 변화될 뿐 16세기에도 꾸준히 생산되었다. 한편, <백자발>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명나라에서 만들어지던 <백자발>(도 19)은 주둥이가 가장자리가 밖으로 약간 벌어져 있고 저부에서 폭이 좁아지며 커다란 굽을 갖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인데, 광주 관요에서 왕실용으로 만들어진 발 역시 동일한 형태와 양감을 보이고 있어, 중국과 조선의 관요백자 사이에 영향 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도 19 <白磁鉢>, 중국, 15세기, 경덕진요산, 입지름 21.1cm, 일본 개인 소장



도 20 <白磁靑畫葡萄文蓋托>, 조선, 16세기, 높이 2.3cm 입지름 22.0cm, 일본 개인 소장

몇몇 실례를 들어 검토해 본 것과 같이 조선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는 장식은 물론 기종, 기형에서도 일부 명나라 백자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발과 호, 접시 등은 오랜 기간 일정한 형태로 꾸준히 만들어져서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명나라 선덕 연간(1426-1435)을 전후해 그러지던 소재와 구성이 관요백자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여러 기종이나 기형이 15세기 전반에 제작된 중국백자를 모본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관요에서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며 백자 세부 형태와 비례가 조금씩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1493년 사옹원제조 유자광이 광주에서 사용하던 臥釜를 대신해 중국식 立釜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관요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축조되고 운영

되었던 것처럼,³¹ 관요백자의 모든 기종과 기형에 중국백자의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양이잔이나 잔받침과 같이 금속기의 형태를 본 떠 만든 종류가 제작되기도 했으며,³² 편병, 연적, 제기 등 독특한 기종과 기형도 만들어졌다. 이것은 중국백자와 동일한 질과 형태를 제작할 수 있는 광주 관요의 역량을 토대로 조선의 문화적 자부심이 만들어낸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자부심은 당시 조선의 지배층 사이에서 회자되던 시를 백자에 적기도 하고 회화에서 유행하던 포도를 그려 넣기도 했던 장식경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도 20).

3. 명나라 청화백자 수용과정의 몇 가지 문제

앞에서는 관요백자의 장식과 기종, 기형에서 중국자기의 요소가 일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중국자기의 영향을 수용하는 방법과 과정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하나가 관요에서 출토되는 중국산 백자의 질에 대한 문제이다. 비록 소수이지만 광주 관요에서 명나라 청화백자가 출토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파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경덕진 관요에서 제작된 양질백자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검토 결과 민요품으로 추정되는 질이 좋지 못한 유물이 다수를 차지했다. 도마리 1호(도 2)의 발과 접시는 물론, 번천리 5호, 번천리 9호에서 출토된 명나라 청화백자는 장식소재, 세부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거칠며 질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산리 15호와 관음리 22호, 대쌍령리 1호 등 지표에서 수습된 중국산 청화백자 파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

질이 좋지 못한 중국산 청화백자가 출토되는 상황과 대조적으로 이들 파편이 발견된 광주의 가마는 왕실용인 양질백자를 제작하던 곳들이 다수여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다. 특히 여러 가마터에서 중국자기가 출토되고 있어, 그 파편이 관요의 퇴적에 우연히 섞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조사결과를 보면 향후 왕실용 백자를 제작하던 가마터를 중심으로 중국자기의 출토될 개연성도 충분하다. 이들 파편을 관요에서 제작된 국내산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함께 출토된 다른 많은 수의 백자와 세부의 특징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더욱 특이한 점은 관요에서 발견된 중국자기는 모두 청화장식이 있지만, 유사한 장식이 그려진 관요백자가 함께 출토되지 않았으며 전세유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관요백자를 제작할 때 중국자기의 그림장식을 단순히 참조하기 위한 것도

31 진승창, 앞의 논문(2007), pp. 44-52.

32 진승창, 앞의 논문(1997), pp. 99-150.

아니었다. 현재로서는 중국산 조질 청화백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변천리 9호에서 출토된 중국산 접시파편은 상황을 다각도로 생각하게 한다. 앞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이곳에서는 중국산 백자접시와 동일한 기형의 관요백자를 함께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관요의 외반접시와 중국산 백자접시의 기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장식의 문제는 남게 되는데, 향후 새로운 조사결과와 자료의 보완을 통한 해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문제는 관요에서 제작된 청화백자의 장식에 대한 것이다. 관요백자의 장식소재와 구성이 명나라 선덕 연간(1426-1435)을 전후해 제작된 경덕진 관요품의 장식과 유사한 점들이 있음을 이미 밝혔다. 운룡문은 경덕진 청화백자와 광주 관요백자 모두 끝이 가늘고 뾰족하게 묘사된 구름의 모습이 등장하며, 용의 머리와 수염, 뿔, 얼굴의 표정, 앞발과 뒷발을 거의 수평에 가깝게 앞뒤로 뻗고 있는 모습, 발과 비늘의 표현 등에서도 공통된 특징이 나타난다. 여기에 더하여 1542년 전후 운영된 우산리 9호 출토 파편에서도 유사한 특징이 지속되므로, 조선에서는 운룡의 소재와 구성, 세부의 표현 방법이 16세기에도 계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15세기 초에 제작된 중국자기의 장식을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사이 관요의 문양으로 채택하고 그릴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요 청화백자의 그림이 사용원 관리를 따라 광주에 내려갔던 화원에 의해 그려졌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³³ 화원은 광주에 내려가기 전에도 장식으로 선택할 그림에 대한 연습이나 숙지가 가능했고 그것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매번 실물을 직접 대하기보다는 그림 장식에 필요한 ‘畫本’을 만들어 두고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이 간략하지만 『세종실록오례의』 〈백자청화주해〉와 같은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연습과 숙지, 혹은 화본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수의 중국 경덕진 청화백자를 화원은 어디에서 구하여 보았을까 하는 점도 파악하기 힘든 문제 중 하나이다.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세종 연간(1418-1450)과 문종 연간(1450-1452) 사이 국내에 다량 유입, 보관되어 있던 경덕진 관요의 청화백자가 모본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자기의

33 『新增東國輿志勝覽』, 京畿道 廣州牧條, “每歲 司饗院 官率畫員監造 御用之器”(매년 사용원 관리가 화원을 인솔하여 어용지기를 감독, 제작한다); 『松岩集』 卷3, 畫記條. 『隆慶四年夏 舅監察文公 爲官司饗 分監沙器 廣州地也 畫工二人從 禮部遣爲龍縛也(용경 4년(1570) 여름에 감찰로 재직 중인 외삼촌 문공이 사용원 관리가 되었다. 사기제작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되었는데, 광주 땅이다. 화공 두 사람이 따라갔는데, 예부에서 용준을 위해 보낸 것이다).

유입기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조 연간(1455-1468) 이후에는 경덕진 관요품으로 추정되는 청화백자가 공식적으로 유입된 기록이 없다(표 1). 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즈음하여 경기도 광주에 관요가 비로소 운영되었는데, 15세기 말에 제작된 관요의 청화백자 중에는 동시기에 중국에서 유행하던 그림장식이 아니라 15세기 초반 선덕 연관을 전후해 중국에서 유행한 소재와 구성이 나타나는 점은 위의 추정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관요 설치 이후, 15세기 초반의 중국산 청화백자를 모본으로 장식소재가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세부가 변화되기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505년 전후 운영된 도마리 1호나 1550년대 변천리 9호에서와 같이 조선의 특징이 드러나는 문양이 장식되기도 하고 당시 조선 회화에 유행하던 포도와 같은 새로운 소재가 선택되는 양상도 공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³⁴

세 번째는 관요백자의 기종과 기형의 선택에 대한 문제이다. 관요백자 중에는 중국자기의 형태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종류가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수많은 중국자기의 영향을 모두 받은 것도 아니고 관요백자가 전부 중국산 백자와 비슷한 것도 아니지만, 일부 유사한 기종과 기형을 언제 어떻게 선택하고 제작하였을까 하는 의문은 남는다. 이 문제도 청화장식의 경우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세종과 문종 연간 사이에 이미 국내에 유입되어 있던 기종과 기형이 토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관요운영이 개시되던 초기에 조선에 이미 유입되어 있던 백자발, 접시와 같은 종류들이 그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430년 중국 황제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실록오례의』 〈백자청화주해〉(도 1) 등과 유사한 형태는 〈백자청화매죽문호〉나 도마리 1호, 우산리 9호, 변천리 9호 등에서 출토되며 전세유물로 여러 점 남아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 호는 왕실용 백자를 제작하던 가마에서 양질로 제작된 파편만이 출토되고 전세유물 역시 양질품만 알려져 있어 15세기 초에 황제에게 받았던 경덕진 관요백자의 기형을 잇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IV. 맺음말

조선 초기 관요백자의 발전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명나라 청화백자의 영향

³⁴ 강경숙, 「조선초기 백자의 문양과 조선초·중기회화와와의 관계」, 『한국 도자사의 연구』(시공사, 2000), pp. 428-429; 김향희, 「15세기 청화백자에 그려진 그림연구」, 『강좌미술사』 15호(한국미술사연구소, 2000), pp. 101-125; 윤효정, 앞의 논문, p. 93.

과 수용과정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경덕진 관요의 청화백자가 조선에 유입 되는 시기를 정리한 결과, 세종과 문종의 재위기간인 1418년부터 1452년 사이에 중국의 자기 반입이 집중된 반면, 이후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는 공식적인 유입 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중국의 영향이 나타나는 초기 관요백자가 세종과 문종대에 유입된 명대 선덕 연간(1426-1435) 전후의 백자를 모본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16세기 관요의 청화백자에서도 선덕 연간의 장식과 유사한 그림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화장식의 밑그림을 담당하던 화원이 기존에 만들어 둔 화본을 계속적으로 참고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국의 영향 아래에서도 명대 자기와 구별되는 장식의 구성과 문양의 세부 표현을 찾아볼 수 있었다. 나아가 당시 조선에서 유행하던 회화 소재가 자기의 장식에 반영되는 새로운 특징도 확인하였다. 점차 관요의 운영 체계가 정착되고 자기의 제작 기술이 발전되면서, 독자적인 조선의 미감이 백자에 투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주제어(key words) __ 官窯白磁(Royal kiln), 景德鎮(Jingdezhen), 靑畫白磁(Blue and white porcelains), 裝飾素材(Surface designs), 畫本(Design sheets)

참고문헌

史料

-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新增東國輿志勝覽』
『松岩集』

圖錄

국립대구박물관, 『우리 문화 속의 중국 도자기』, 2004.

調査報告書

- 국립중앙박물관, 『광주군 도마리 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도마리 1호요지』, 1995.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서—번천리 5호, 선동리 2·3호』, 1985.
_____, 『광주 번천리 9호 조선백자요지』, 2007.
경기도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회암사Ⅱ—본문』, 2003.
福岡市教育委員會, 『博多86—博多市埋藏文化財調査報告書』第757集, 日本, 2003.

單行本

-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李正中·朱裕平, 『中國古瓷銘文』, 中國 天津人民出版社, 1991.
鐵 源, 『明清瓷器紋飾鑑定—荷蓮牡丹文飾卷』, 中國 華齡出版社, 2003.

論文

강경숙, 「분원성립에 따른 분청사기 편년 및 청화백자 개시 문제」, 『이기백선생고회기념 한국사학논총

- (하)』, 일조각, 1994, pp. 1494-1495.
- _____, 「조선초기 백자의 문양과 조선초·중기회화와의 관계」, 『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pp. 428-429.
- 김영원, 「한국과 중국의 도자교류, 10~19세기」, 『중국도자』, 국립중앙박물관, 2007, p. 36.
- 김향희, 「15세기 청화백자에 그려진 그림연구」, 『강좌미술사』 15호, 한국미술사연구소, 2000, pp. 101-125.
- 윤용이, 「조선초기도자의 양상」, 『조선백자요지 발굴조사보고전』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특별전도록 21,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1993, p. 80
- 윤희정, 「조선 15~16세기 청화백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현정, 「조선 전기 백자에 보이는 명대 자기의 영향」,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원복, 「조선백자에 나타난 포도화」, 『미술자료』 45, 국립중앙박물관, 1990, p. 11
- 전승창, 「조선전기의 백자 전접시 고찰」, 『호암미술관 연구논문집』 2호, 삼성문화재단, 1997, pp. 105-107.
- _____, 「15~16세기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관요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정양모, 「조선백자 청화백자」, 『한국미술사의 현황』, 예경, 1992, pp. 403-404.

국문초록

조선시대 관요백자의 특징을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자기와의 관계이다. 중국 경덕진 청화백자는 관요백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광주 가마터 발굴에서 경덕진 백자가 출토되었으며, 전세유물의 장식, 형태 등에서도 중국자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작품들이 다수 확인되었다. 관요백자와 중국자기 사이의 관계는 일부 연구자의 관심을 끌어 왔다. 그러나 문헌기록의 정리와 유물의 분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명칭이나 특정한 사항에 대한 언급, 유사점에 대한 단편적인 비교와 서술이 대부분이다. 그 결과 일부 자료의 축적과 관심의 증대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자료 및 유물의 검토와 다양한 현상에 대한 해석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관요백자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위해 명대 청화백자의 유입과 수용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선행 작업이 되었다.

본 논문은 조선 초기 명나라(청화)백자의 유입상황과 관요백자에 보이는 수용과정의 문제점을 고찰한 것이다. 중국 경덕진 관요의 청화백자 조선 유입은 세종과 문종의 재위기간인 1418-1452년 사이에만 집중될 뿐 이후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사이에는 공식적인 유입기록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 관요운영 초기에 제작된 청화백자 중에 중국자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유물의 다수는 세종과 문종대에 유입되었던 중국 선덕 연간(1426-1435) 전후의 백자를 모본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16세기 관요의 청화백자에서도 선덕연간의 장식과 유사한 그림이 지속적으로 그려지는 이유에 대해, 청화장식을 담당하던 화원이 이미 만들어 둔 화본을 통해 그림 장식을 했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국자기와는 다르게 장식과 구성, 형태의 세부를 변용하기도 하였으며, 장식소재도 조선에서 유행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등 관요백자의 새로운 특징이 가미되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 초기 명나라 청화백자의 유입상황과 수용과정의 문제점, 관요백자의 특징 등을 규명할 수 있었으며, 이후 관요백자 연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Influence of Ming-dynasty Blue and White Porcelains in Early Joseon Ceramics: Reception and Assimilation

Jeon Seung-Chang*

Joseon white porcelains cannot be correctly understood without examining their relationship with Chinese ceramics. This is especially the case with the ceramics production from Joseon's royal kilns. Blue and white porcelains from Jingdezhen, for example,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Joseon's government ceramics industry. As a matter of fact, Jingdezhen ceramics were found in royal kilns in Gwangju, and their stylistic characteristics are echoed by many surviving Joseon porcelains, reminiscent of the latter both in terms of the overall shape and surface decor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kiln-produced white porcelains of Joseon and Chinese ceramics, whilst it has received some attention from researchers, is far from being sufficiently explored. Many of the previous studies are simple comparisons of the two traditions, concerning their names and visual aspects, which are backed up neither by adequate documentary research nor by artifact-based research. Although these works contributed to the stock of literature on the subject and helped awaken interest in it, they leave much to be desired in terms of thoroughness and depth of documentary and artifact-based research, and just as importantly, fall short of providing meaningful explanations on some of the more complex phenomena, arising from this stylistic kinship between the two traditions. Hence,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ceramics traditions is yet to be undertaken, starting from very basic

* Samsung Museum of Art Leeum

questions, such as how Chinese blue and white porcelains of the Ming Dynasty reached Joseon and how they were assimilated by Joseon's royal kilns. This paper is an inquiry into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import of Ming-dynasty blue and white porcelains in the early Joseon period, and early manifestations of their influence on local ceramics production.

The import of blue and white porcelains from Chinese kilns of Jingdezhen took place mainly over a period of little more than three decades, between 1418 and 1452, corresponding to the reigns of Sejong and Munjong. There is no official record reporting related occurrences in the late 15th century or the 16th century. It is important to keep this timeline in mind when comparing the two traditions for stylistic influence and affinities. Joseon blue and white porcelains produced during the early years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royal kilns appear to have been modeled on Chinese ceramics dating mostly from the Xuande era (1426-1435), brought into the country during the reigns of Sejong and Munjong. However, surface designs, similar to Xuande-era blue and white porcelains, are widely observed also among Joseon porcelains produced during the 16th century. One likely explanation of the persistent recurrence of these designs is that pottery painters of the Joseon royal kilns continued to use design sheets from preceding periods. By the 16th century, royal-kiln porcelains of Joseon developed their own distinct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ir Chinese counterparts, both in terms of decorative motifs and overall shape, and popular Joseon paintings were frequently transferred for surface decoration.